

“채무자 재기 사다리...개인회생 정상 절차 인식”

사건 접수 20~30% 증가...전문법원 출범 효과 무료 상담센터 운영도...제도 접근성 크게 개선

채무자들의 마지막 선택지로 여겨졌던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현실적인 재기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전문 회생법원 출범과 무료 상담센터 운영이 맞물리며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지난 3월 개원 이후 호남·제주권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 법원이나 타 지역 회생법원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과 처리 속도다. 채무자들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판단과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사다리도 앞당겨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법원 개소 이후 사건 접수는 이전보다 20~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과 제주 등 인접 지역에서도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창구도 확대됐다. 광주회생법원은 이날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빛고을회생드림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에서는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단계에서 제도 안내와 절차, 채무조정 방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동안 개인회생과 파산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제도로 인식돼 왔다.



광주회생법원은 6일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빛고을회생드림 상담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정주 광주회생법원 초대법원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지방법원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사재나 불법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센터 운영으로 이러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제도권 내 해결을 선택하

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개인회생과 면책 제도 이용이 늘고, 비제도권 금융 의존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인식 변화도 감지된

다고 평가한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파산이 낙인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상담부터 신청, 심리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가하는 사건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법관과 실무 인력 보강 필요성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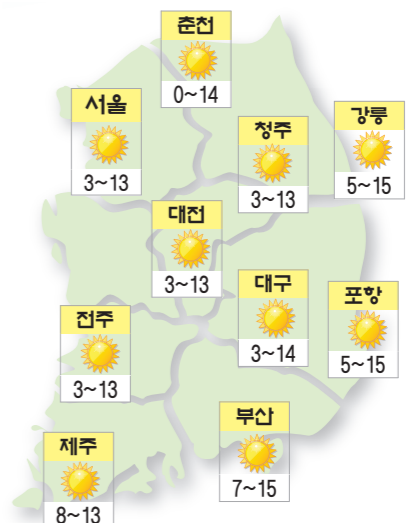
광주회생법원은 현재 상담센터 1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 수요와 운영 실적을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채무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6:12 달맞이 ---:--
☁️ 맑음 18:58 달맞이 08:45



광주	☀️	4~14
목포	☀️	5~12
여수	☀️	5~14
순천	☀️	5~15
구례	☀️	3~14
광주	☀️	4~13
진남	☀️	4~14
진도	☀️	7~11
진도	☀️	5~15
진도	☀️	6~13

‘땅 꺼짐’ 광주·전남 5년간 135건...우기 집중

하수관 손상 주요 원인 광주 8월 ‘전국 최다’ 잇단 사고에 시민 불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반복되면서 도심 통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수관로 손상과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선제적 점검과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5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지반침하 사고는 총 135건(광주 108건·전남 2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21년 20건, 2022년 11건, 2023년 32건, 2024년 10건 등 매년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7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계절별로는 우기인 6~8월에 전체의 60.7%인 82건이 집중됐다. 이 중 8월에만 광주에서 43건이 발생해 같은 달 전국 사고의 약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이 75건(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매우기(다짐) 불량 26건(19.2%), 기타 매설물

손상 12건(8.8%), 굴착공사 부실 7건(5.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요청에 따른 지하안전 점검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이 지원한 점검은 104곳(광주 57곳·전남 47곳, 총 440km(광주 339km·전남 101km)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도심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광주 동구 남로5가 교차로 인근에서는 폭 20cm, 깊이 40c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긴급 복구작이 이뤄졌다. 같은 달 3일 광산구 우산동에서는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공사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이사장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면도로와 주택가까지 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하 매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굴착 공사 과정에서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굴착 공사가 늘면서 지반 균형이 쉽게 무너지고 있다”며 “인허가 단계의 지하 안전 영향평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최선을 다해 6일 광주 북구 매곡동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광주기능경기대회 용접 부문 참가한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숙련 기술인들의 경연장인 이번 대회는 33개 직종 280명의 선수가 참가해 오는 10일까지 11개 경기장에서 경쟁을 펼친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임시공휴일 학교·유치원 운영의 생략 가능

교육부 법 개정안 의결...“학사 운영 유연성 확대”

앞으로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각급 학교는 해당일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야 했다. 이 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가능했고, 수업 운영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육 현장의 요구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안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가능했고, 수업 운영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육 현장의 요구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안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주차된 차량 절도 ‘쇠고랑’

만년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광주 도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40대 남성이 다시 절창신세.

광주 북부경찰은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수.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열쇠가 꽂힌 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답답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 지난 2일 광주 북구 모처에서 A씨를 체포.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임영진 기자

대기 불안정...광주 1.2cm 우박

광주 지역에 올해 첫 우박이 공식 관측됐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부터 오후 2시11분까지 5분간 지름 1.2cm의 우박이 내렸다.

2001년 우박 관측이 시작된 이후 4월 중 광주에서 우박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2015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관측되지 않았지만 나주와 함평 등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우박 관측이 가능한 곳은 광주, 목포, 여수, 신안 흑산도 등 4곳이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기압골 영향과 급격한 기온 하강,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우박과 비가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광주·전남소방본부에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광주 남구 10mm, 함평 9.5mm, 영광 낙월도 8.5mm, 나주 5.5mm, 곡성 5.0mm, 무안 운남면 4.5mm 등이다.

광주 12회, 전남 31회의 낙뢰가 관측되기도 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책 읽고, 공연 보고”...광주 ‘책정원’ 30만 발길

개관 2년...매달 1만3000명·대출 28만3991권 인형극·음악회 등 도심형 문화거점 ‘자리매김’

광주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이 개관 2년 만에 이용자 3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공연과 체험, 인문 프로그램을 결합한 운영 방식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6일 동구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책정원 누적 이용자는 32만5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6만3457명, 2025년 16만2062명으로 월 평균 1만3546명, 하루 평균 450여명이 방문한 셈이다.

같은 기간 도서 대출권수도 28만3991권(2024년 14만3570권·2025년 14만421권)에 달해 월 평균 1만1832권 수준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이용률과 높은

대출 실적이 동시에 나타나며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책정원은 동구 내남동 일대 2710㎡ 부지에 연면적 2622㎡ 규모로 조성돼 2023년 12월 개관했다. 현재 17만536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자책이 17만여권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공간 구성도 세대별 이용 편의를 고려했다. 1층(연면적 969.64㎡)은 유아·어린이 중심 공간이 마련됐다. 2층(860.56㎡)은 종합자료실과 북스테이 등 시설이, 3층(792.71㎡)은 강의실과 다목적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관 초기에는 도심 외곽 입지로 접근성 우려가 제기됐지만, 상황은 빠르게 반

전됐다. 2024년 1월 동구가 제작한 홍보영상 ‘오늘 점심?! 양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 5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후 외지 방문객까지 이어졌다.

이용자 증가에 맞춰 운영 방식도 개선됐다. 동구는 평일 폐관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신규 사서 정직원 채용했다. 그 결과 야간 이용자만 1만9000여명에 달하는 등 이용층이 확대됐다.

특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도서관 활동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가장 인기 많은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으로 한 ‘붓글씨로 쓰는 수



책정원'로 10회 운영에 총 133명이 참여했다. 이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에서 사회 보이기’(6회·84명), ‘어린이 토론 교실’(6회·81명), ‘문해력 키우는 그림책 수업’(6회·64명)과 ‘작가 탐구 북클럽이션’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인형극과 음악회, 지역 작가 초청 행사 등 공연형 콘텐츠를 결합한 ‘인문 동행의 날’과 ‘남민연구소음악회’도 55회 운영에 총 2756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생활편의 기능까지 더해지며 주민 밀착형 공공시설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책정원이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지역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